

대행 스님

내 소유라는 것이 없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여러분이 이거부터 알아야 되지 않나…. 내가 벗어나야 아무 데고 가도 간 흔적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면 흔적이 남죠. 아, 요기 한 발짝만 떼어도 벌써 흔적이 나오는데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 고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서 더 말하라는 겁니까? 벽은 쳤는데요, 봇장이 울리는 건 여러분이지 어떡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좀 더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일하면서도 생각이 들면 무조건 거기다 맡기고, 조금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시란 얘깁니다. 내가 생각을 안 하면 내 마음이 진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커지질 못해요. 생각을 아주 안 하는데 그게 목석이지,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우리 배 속에 있는 모든 걸 보세요. 그게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증거물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도 좋고 물에 가도 좋죠? 여러분네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허허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청산유곡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신선하고 좋고, 또 맑은 물이 쉴 사이 없이 흐르는 걸 봐도, 계곡에 가서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가 노는 걸 봐도 싱그럽고 좋지요. 그게 여러분 고향이에요. 수없는 겁을 거쳐서 인간까지 이렇게 모습을 가져왔고 기어 다니다가도 모습을 가져왔고…. 지금도 여러분한테 꽁지가 조금 붙었습니다. 꽁지 안 붙은 분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흔적이, 꽁지 떨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말짱 벗어나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으로 살 수 있죠. 생각으로 운전할 수 있고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사람까지 이렇게 맛볼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기다란 유체 같은 게 가요. 그건 이름도 모르죠, 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알을 까서 뒷꽁무니에 질질질질 끌고 가서는, 풀을 갖다가 발로 두껍게 알 밑에다 깔고는 풀로 살짝 덮어 놔요. 그런 걸 하나 보더라도, 야! 요렇게 묘하구나. 요렇게 묘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 오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하다못해 요만한 미생물에서부터 그렇게 스스로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까지 돼서도 자식들을 그냥 덮어 주고 입혀 주고 먹여 주고, 이러면서 어디를 나가서 안 들어오기만 해도 안절부절을 못하고, '빨리 들어와야지.' 하면서 걱정을 하고 이러는 거죠. 아마 거기에서는 좀 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요, 그렇게 거쳐 오면서 모였다 바람처럼 흩어지고 모였다 바람처럼 흩어지고…, 이 식구가 말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또 딴 식구들하고 또 만나고, 진화를 좀 하면 진화한 만큼 또 같이 모이고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적으로 본다면 부모 자식이 따로 없다는 얘기죠. 사는 동안에 같이 모여서 살 뿐입니다. 그러니 착을 두지 마시고 그저 사랑으로써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온통 "너 어디서 자고 왔어? 전화번호 대!" 뭐 틀림없죠. "전화번호 대! 어디서 자고 왔어? 뭐를 어떻게…." 이럭하면 애들이 반항해서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올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었길래 그랬겠지. 너 배고프지 않으냐?" 하고 아주 딱 받아서 안아 준다면 나가서 자라고 발길로 차도 나가서 안 자요, 네? 그런데 착을 두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대접을 해 줘야 하는데, 꼭 내 손에 들어 있는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전부 늙어 죽어서 애가 된 거지. 아니, 허허허…. 여러분도 늙어 죽었다가 또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나이를 조금 더 먹었다고 해서 자기가 생산해 놓은 것을 자기 거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저 남의 자식이든 내 자식이든, 남의 부모든 내 부모든 평등하게, 그저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있으면 보시하고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보시하고, 이렇게 무주상 보시를 해서 그저 남을 이익하게만 한다면…. 그리고 또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내 가끔 그러죠. 여기 우리 학생들이 올 때가 있죠. "스님! 이러이러한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 때, 평등하게 내 소유라는 것이 없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소유라고만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를 못 합니다. 요구를 해야 하니까. 요걸 가지고 이것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넓게 나지도 못하죠. 그래서 어휴, 가슴이 쓰르르하고, 언제적 내 자식 네 자식이고, 언제적 내 부모 네 부모더냐. 모였다가 바람결같이 흩어지는 것이, 스쳐 가는 것이 인생 아닌가. 우리는 방랑객으로서 한데 캠핑 나와서 살다가 날이 어두워지면은 흩어져야 할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그런가? 허허허….

나만 말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나를 튕겨 주셔야죠. 꽃 한 송이도 풀 한 포기도 내가 볼 때에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선 내가 먼저 말할 수도 있지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 그쪽에서 먼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꽃도요, 저녁이면은 탁 오므라집니다.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홀짝 오므라들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해가 다 졌다. 아휴, 이제 잠자자." 하거든요. 모두가 잠을 자는 건 아닙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잠을 잔다 안 잔다 없이 그냥 있는 게 국보로서, 소나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푸르름을 가져온 겁니다. 사철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게 다 마음의 뜻이 있죠. 이 마음이 오고 갑니다.

나무에 맞아 죽을 팔자를 가진 사람이 나무에 목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너도 나하고 벗이요, 영원한 친구지.' 하니까 목신으로 인해서 죽을 건데 둘이 아니라는 바람에 목신이 그냥 외려 도와주더랍니다. 하하하…,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부자 사장이 가난한 직원에게 "애, 너도 우리 일을 하고 나도 우리 일을 하고 둘이 아니지 않으냐? 그러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벌어먹자." 한다면 고마워서 말입니다, 밤낮을 모르고 일할 겁니다, 아마. 그렇듯이 아니, 자기한테 평등하고 좋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와 자기가 둘이 아니죠. 그러니 일을 자기 일 하듯 하죠. 그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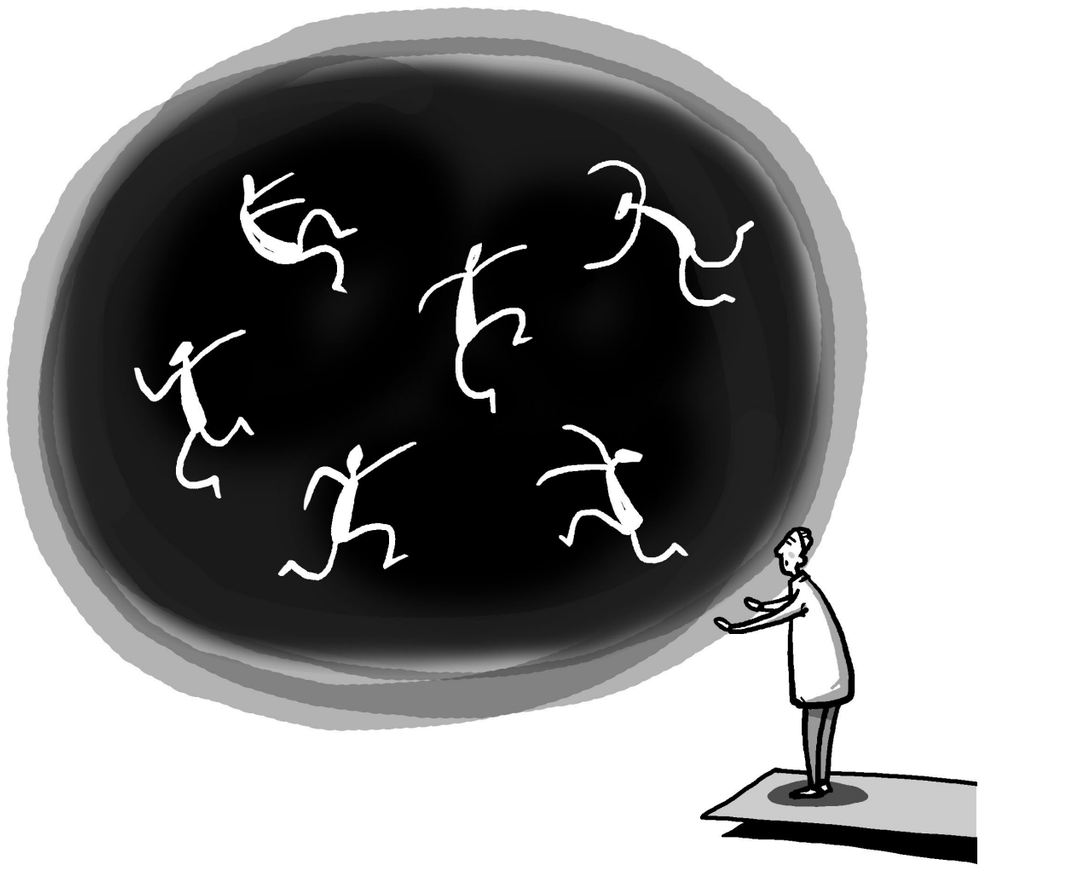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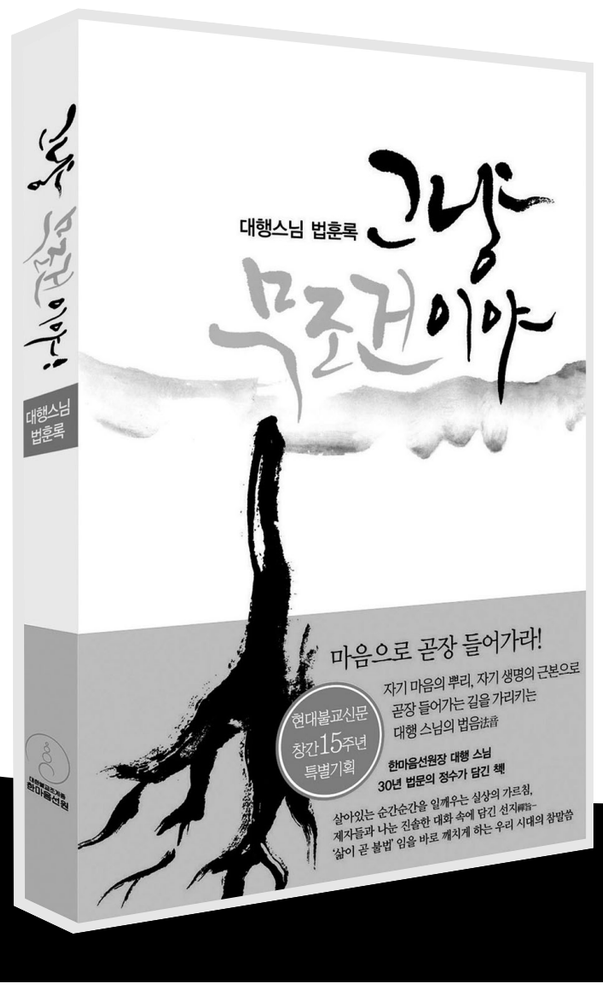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